

# DAC 상주대표회의의 결과

DAC 상주대표회의가 10월 21일 개최된 바,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음.

## I. 핵심요지

- 개발, 환경장관 합동회의 개최방안(2006.4.4), 개발원조위원회 중견관리급회의(SLM) 개최방안(2005.12.6~7), 개발에 관한 글로벌포럼 개최방안(2006년 4/4분기) 등에 대하여 논의함.

## II. 상세논의내용

### 1. 개발장관 및 환경장관 합동회의 개최방안 논의

- 2006년도 개발원조위원회(DAC)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개발장관 및 환경장관 합동회의를 2006.4.4 개최키로 한 것과 관련, 사무국은 그간의 논의결과 토대로 합동회의 개최방안(초안)을 다음과 같이

제시하고 회원국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.

#### □ 회의 목적

- MDG중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진함에 있어 양 정책의 효과적인 통합을 위해 공통이슈 규명
- 개발 및 환경정책간의 정책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 분야간의 전략적 동맹 추구
- '공동목표를 향한 공동 행동계획' 추진을 위한 정치적 합의 모색
- '기후변화와 개발협력간의 통합에 관한 선언' 합의를 위한 정치적 승인 제공

#### □ 참석자

- OECD 회원국의 개발장관 및 환경장관
- 주요 국제기구 대표(WB, UNDP, UNEP, GEF 등)

#### □ 산출물

- 기후변화와 개발협력간 통합에 관한 선언
- 공동목표를 위한 공동 행동계획

□ 의제

- Session 1 : 환경과 빈곤퇴치
- Session 2(오찬세션) : 국제개발 및 환경 거버넌스
- Session 3 : 개발과 국제환경협약
- Session 4 : 공동목표를 위한 전략적 동맹 결성

## 2. 금년 12월 DAC 중견관리자회의(SLM) 의제 논의

- 금년도 SLM 회의를 12.6-7간 개최하되, 12.6 회의(SLM Plus session)는 지역개발은행 대표들도 참가토록 하여 WB와의 공동회의로 하며, 의제는 원조규모 확대문제 및 파리선언 이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함.
- 12.7 회의는 SLM 단독회의로 하며, △취약국가에 대한 원조, △Untying, △능력개발분야의 도전, △2008년도 작업우선순위 및 자발적기여금, △2006년도 고위급(각료급)회의 의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함.
- SLM 회의에 본부 대표단 파견을 건의함.

## 3. 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 개최 추진

- 개발센터와 DAC는 OECD의 개발관련 Outreach 활동을 조정하는 기본 틀로 '개발에 관한 글로벌 포럼' 개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, 현재 구체 추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, 금년 말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임.
- 현재 논의중인 글로벌 포럼의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음.
  - 글로벌 포럼 개최목적은 △OECD의 개발관련

활동 및 Outreach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, △OECD의 지도적 역할을 제고하며, △비회원국을 OECD의 개발관련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설정

- 개최시기 및 의제와 관련, 글로벌 포럼을 매년 개최하되, 논의의제는 기본적으로 multi-year cycle로 운영하며, 첫번째 사이클(향후 3년)동안 국제개발재정체제(Int'l development finance architecture)에 대하여 논의함. 1차회의는 2006년 4/4분기에 개최
- 참석자는 개발정책을 다루면서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, OECD 회원국, 국제금융기구, 원조효과작업반 참석자 및 비회원국 대표도 초청

## 4. 본부 ODA 담당관을 위한 정책브리핑 (Structured Briefing for Aid Managers)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

- 9.28~30 개최된 본부 ODA 담당관을 위한 정책브리핑이 DAC 및 non-DAC 공여국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, 앞으로도 이를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함.
- 다만, 다음번 회의 개최시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.
  - 참가범위를 확대하여, DAC 회원국에서도 새로 부임한 상주대표 및 본부 ODA 담당관들에 대한 참석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  - 이번에는 브리핑에 중점이 두어졌으나 상호간 의견교환에 중점이 두어져야 함.

- 궁극적으로 DAC 참가를 희망하는 국가와 여타 국가를 구분하여 전자 그룹과는 기존에 DAC 회원국이 합의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토론하여 컨센서스를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함.

- 사무국은 내년에도 동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자발적 기여금 지원 등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언급함.

## 5. 원조효과작업반 회의 결과 평가

- 10.19~20간 개최된 원조효과작업반 회의는 공여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석한다는 점에서 여타 DAC 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며 파리선언 이행을 위하여 중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봄.

- 다만, 원조효과작업반 회의와 DAC 상주대표회의 간 역할 분담, 개도국 대표들의 회의 참가를 위한 여비 지원 문제 등 향후 원조효과작업반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DAC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.

## 6. 2007~08년도 개발클러스터 기본 작업계획

- 사무국은 개발클러스터 기본 작업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1차적으로 개발클러스터 내에서 협의를 하고 앞으로 OECD 전체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완성예정이라고 언급함.

- 또한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11월초까지 회원국의 코멘트를 받아 아래 4개 주제로 나누어 작업계획을 작성하되, 12월 개최 SLM에 보고 및 논의를 거쳐, 2006.1. 이사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예정임.

- 경제성장, 세계화, 정책개혁 및 빈곤퇴치를 위

한 대화 및 공동대처

- 개발재원 동원 및 재원의 효과적 사용

- 제도 수립, 능력개선 및 거버넌스 강화

- 위기관리

-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사무국 페이지의 기본 방향에 동의하되, 문서의 target group을 좀더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, OECD의 장점을 살려 국제 개발컨센서스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.

## 7. DAC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 관리

- DAC은 자발적 기여금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비공식그룹을 구성하여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왔는바, 7개 기본원칙에 대하여 대부분 의견접근을 보았음.

- 일본과 독일만이 △특정 산출물이 아닌 특정 구좌에 기여금을 연계시킨다는 것과 △1개 합의서에 원칙적으로 2년간 기여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다소 유보적 의견이 있음을 명시하기로 함.

[자료:주오이시디 대표부]